

## 교회 대표단 세계 가족 회의 참석

“2000년이 눈 앞으로 성큼 다가오는 가운데, 세계 전역에서는 가족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1997년 3월 19일부터 22일 까지 체코 공화국 프라하에서 열린 세계 가족 회의의 주창자들은 기술하고 있다. “그러한 속에서도, 희망의 징후들 또한 떠오르고 있다. 인류의 역사상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가족이 문명의 중핵으로 복원되도록 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교회의 공식 대표들도 41개국에서 600여 명이 참여한 회의에 함께 참가하였다. 동유럽 지역 회장단 보좌이며 칠십인 정원회 회원인 브루스 시 하펜 장로와 당시 본부 상호 부조회 회장이었다가 최근에 해임된 엘레인 엘 잭 자매가 지역 회장인 칠십인 정원회의 찰스 디디에이 장로를 동반했다. 하펜 장로는 한 모임에서 연사로 지명되었다. 또한 브리감 영 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린 와들 교수와 리차드 윌킨스 교수도 연사로서 주제 발표를 하였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공포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이 15개국 언어로 마련되었다.

회의 주창자들에 따르면, “가족이란 인류의 존속, 자녀의 양육, 성의 조정, 상호 지원 및 보호, 이타적인 가정 경제의 창조, 세대간 유대의 지속 등의 목적을 위해 결혼 성약에 의해 평생토록 하나로 결합된 한 남자와 여자를 의미한다. 이 모임은 가족 붕괴의 공동된 인자를 집중 조명하고, 세계의 모든 가족들을 대신하여 세계의 모든 정부에 보내는 가족과 국가간의 올바른 관계를 상징하는 선언문을 작성하고 공포하며, 가족 생활의 번성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규명하는 것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디디에이 장로는 “매일마다 방송 매체를 보면 가족 구조 및 가족 가치관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지식층과 정치 세력의 생각들을 대변하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한

경향들은, 만약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명을 파멸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침묵하고 있던 세계의 일반 대중이 가족에 대한 침체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이 모임을 통해 처음 목격하고 있습니다. 연사들은 가정 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재확인하였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하펜 장로는 연설하는 중에 엘마서 38장 12절의 “격정을 다스려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족의 법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격정을 다스리는 고삐의 역할을 해 왔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헌신이란 장기적인 관계를 염원하는 우리의 기대를 이끌어 주는 방향타입니다. 그같은 고삐가 없다면, 격정과 자기본위의 원칙들이 난무하여, 결국엔 개인과 사회를 해하게 됩니다.”

어린이 각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경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펜 장로는 “아이들이 그들의 권리를 제멋대로 사용하도록 방치해 두면 때때로 부모의 책임이 경감될지 모르나, 이러한 행위는 실제로 매우 심각한 어린이 유기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동성에 행위에 대한 사회적 묵인과 동성간의 결혼에 대한 대중의 반대에 대해 다루면서, “만일 법이 사회적으로 묵인된 모든 것들을 승인해 준다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묵인해야 하며, 묵인하지 않은 어떠한 것도 승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펜 장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으며 연설을 마쳤다. “고삐맨 사랑은 열정적으로 가족을 양성하지만, 고삐풀린 격정은 가족을 파괴한다.”

린 와들 교수는 연설을 통해 “사회의 특정 집단, (특히 연예계와 학계에서) 동성간의 결혼에 대한 지지를 얼마나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가에 대해 토의했다.” 그러나 “이성간의 결혼은 국가와 사회와 개인에게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특혜가 주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성간의 결혼은 사회와 국가의 안녕과 존립에 너무나 중요하며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대상으로 분류되어 왔다. 동성간의 결혼

을 청구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모든 세대에게 결혼이란 제도의 중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잭 자매는 “수많은 조직들이 가족의 가치를 장려하는 데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 기운이 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함께 단합하고 서로를 강화시키면 큰 힘이 발휘됩니다. ‘학생들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함으로써 도덕과 행복으로 이르는 방편이 열리게 되므로, 우리는 기쁘게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슬픔을 가진 부모와 교사는 어떠한 가치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고전을 표명한 니카라과 교육부 장관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 교회 지도자들이 홍콩 특구 행정 수반을 만남

최근 한 모임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은 홍콩이 영국령에서 중국령으로 이양된 뒤에도 홍콩 주민들이 계속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 칠십인이자 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는 콰 윤 타이 장로 및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가 중화 인민 공화국의 홍콩 특구 행정 수반인 통치화 씨를 만나면서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모임에서,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통치화 씨에게 홍콩 교회의 역사 및 회원과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교회의 인도주의적인 봉사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홍콩 성전을 건립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 모임에서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회원들은 어디에 살든지 왕과 대통령과 통치자와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회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총리께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홍콩을 방문한 동안, 파우스트 부대관장과 넬슨 장로는 홍콩의 다섯 개 스테이크가 참여한 지역 대회에도 참석했다.



# "헌혈의 날 행사"

전국의 말일성도 1500여 명 참가

**스** 국 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넋을 기리는 목념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린 지난 6월 6일 현충일 오전 10

시, 전국의 말일성도들은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헌혈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스테이크와 지방부 센터가 있는 전국 12개 시에서 진행되었는데 특히 서울은 신당, 신촌, 화곡 등 3곳으로 나누어서 헌혈을 했고, 부산에서는 부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지방부가 따로 나누어져서 헌혈을 하였다. 천안 지방부와 강릉 지방부는 해당 지역의 혈액원 사정에 의하여 6월 29일과 14일로 연기되었다.

한국에서 봉사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도 성도들과 함께 헌혈에 참여하여서 한국인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었다.

이번 행사에 대해 개척자 150주년 한국 지역 기념 행사 준비 위원장인 고원용 장로는 "이번 헌혈 행사는 말일성도들이 1847년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정착한 지 1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당시의 개척자들이 보여주었던 헌신과 희생 정신을 되새겨 보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각 지역 별로 헌혈 상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신당 와드에서는 서울, 서울 동, 동대문, 영동 스테이크가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날 KBS 보도진이 헌혈 장면을 취재하였고, 이 기사는 KBS 저녁 7시 뉴스에 방영되기도 했다. 한 자매는 헌혈 부적으로 판정 나자 포기하고 돌아갈 수 없어서 오후에 다시 돌아와 헌혈할 수 없느냐고 애원하

기도 했다. 점심 시간에는 신권 지도자들과 적십자사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회를 알리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참여 인원은 서울 43명, 동 76명, 동대문 66명, 영동 68명이었으며, 실제 헌혈자는 180명이었다.

서울 북 스테이크와 서울 서 스테이크는 신촌의 서울 서 신학 연구원에서 헌혈 행사에 참여하였다. 북 스테이크는 106명, 서 스테이크는 52명 총계 158명이 참여하였으며, 예상보다 많이 참여하여 조금 늦게 온 대부분의 회원들이 대기 번호표를 받아서 오랫동안 자기 차례를 기다리기도 했다. 실제 헌혈자는 105명이었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센터인 화곡 와드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110여 명의 회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헌혈에 참여하였고, 지역 주민들도 이에 호응하여 다수 참여하였다. 또한 강서구의 지역 케이블 TV 및 강서 뉴스에서도 이를 취재하여 보도해서 교회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 헌혈자는 80명이었다. (강서 스테이크: 안병철)

**인천** 스테이크는 이날 행사는 사전에 계획되었던 스테이크 주최 와드 대항농구 대회와 병행해서 헌혈 행사가 진행되었다. 응원하는 중간중간에 회원들은 줄을 서서 계속 헌혈에 참여하였다. 혈액원측의 시간 사정으로 오래 기다릴 수 없어서 농구 대회 준결승과 결승에 진출한 회원들이 헌혈을 하지

못해 아쉬워 했으며, 헌혈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으로 개인적인 치료용 약물 복용 등의 사유로 헌혈하지 못한 회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100여 명이 참여하여 42명이 채혈을 하였다. (이성열)

**수원** 스테이크는 수원 스테이크 센터에서 87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웃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헌혈 행사에는 지나가던 비회원들도 뜻을 같이하여 헌혈에 참여하였으며, 소식을 접한 중부 일보에서는 6월 9일자 신문에 기사화해서 실었다. 이날 행사에는 처음 헌혈을 하는 회원들을 비롯해서 예상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실천을 통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상호)

**대구** 스테이크에서는 대구 지역보다 며칠 앞선 5월 31일에 헌혈 행사를 하였다. 수성 와드에서 가진 이번 헌혈 행사에는 105명이 참여하여 83명이 채혈을 하였다. 특별히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을 비롯하여 스테이크 부장단, 고등 평의원, 감독, 지부장 등 신권 지도자들이 솔선 수범하여 헌혈을 하였으며, 구미, 김천, 상주 지역의 회원들은 구미 지부에서 별도로 헌혈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당초 헌혈 참여 희망자가 62명으로 집계 되었으나 각 와드, 지부에서 홍보가 잘되고, 회원들이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대구 스테이크 회원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재우)



▼ 본 란은 '말일성도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6월 6일 현철의 날 행사를 보도한 기사를 모은 것이다.

**광주**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센터에서 광주 적십자 혈액원 관계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철 행사를 가졌다. 모두 115명이 참여하여 64명이 채혈을 하였다. 현철에 앞서 임종하 스테이크 부장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회개한 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현철을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하였다. 현철이라는 작은 회생을 통해 광주 스테이크 회원들은 개척자들의 희생 정신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박유미)

**부산** 스테이크는 이 날 해운대 송림 공원에서 스테이크 체육 대회를 가졌다. 부산 혈액원에서는 체육 대회 장소로 현철차 2대를 보내와서 회원들은 대회 도중 현철을 하였다. 100여 명이 참여하여 74명이 채혈하였다.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현철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현철에 임했고, 이번 현철 행사를 통하여 현철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부산 서 지방부는 이 날 가진 승학산 등산을 위해 피정 지부에 모여서 산에 오르기 직전에 별도로 현철을 하였는데 50여 명이 참여하여 33명이 채혈을 하였다.

**그외 지역** 안양 스테이크는 70여 명이 참여하여 48명이 채혈을 하였고, 청주 스테이크는 79명이 참여하여 45명이 채혈을 하였으며, 전주 스테이크는 80여 명이 참여하여 60명이 채혈을 하였다. 또한 마산 스테이크는 70여 명이 참여하여 43명이 채혈을 하였으며, 원주 지방부는 50여 명이 참여하여 27명이 채혈을 하였고, 순천 지방부도 40여 명이 참여하여 29명이 채혈을 하였다. 우리 나라의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에서도 10여 명이 참여하여 5명이 채혈을 하였다.

**1** 말일성도(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교회(일명 모르몬교)는 오는 6일 현충일을 맞아 전국 17개 주요도시 150개 교회에서 현철행사를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는 모르몬교 외국인 선교사 3백50명을 비롯, 2천여명의 신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 모르몬 신자 2천명 현충일 현철행사

### 17개市 교회150곳서... 외국인선교사 함께

한국 모르몬교의 지도자 고원룡장로(한국IBM 전무이사)는 『이번 현철은 말일성도예수 그리스도교회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 정착 150주년을 기념해 당시 개척자들이 보였던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웃사랑실천 현철활동벌어**

수원지역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교구장 이용환 서울대교수) 회원 1백여명은 6일 오전 대한적십자사의 협조를 받아 현철을 통해 순국선열의 희생을 몸소 실천하는 현철활동을 벌였다. <金是範기자>

**2** 2백여명이 참석한다. 17개 도시서 현철행사 말일성도예수교회 말일성도예수 그리스도교회(물문교)는 6일 현충일을 맞아 전국 17개 도시에서 외국인 선교사 3백50명을 비롯, 2천여명의 신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에 의해 전래돼 현재 7만여명의 신도

여하는 현철행사를 실시한다. 한국 물론교의 대표감독인 고원룡씨(한국 IBM전무이사)는 『미국 유타주 정착 1백50주년을 기념해 당시 개척자들이 보였던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이 행사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19세기초 미국 뉴욕에서 창립된 물론교는 국내에 7만명의 신자가 있다.

1. 서울신문(6월 1일자)
2. 동아일보(6월 6일자)
3. 문화일보(5월 31일자)
4. 중부일보(6월 9일자)

## 3 모르몬교신자 2,000여명 현철



미국 유타주에 있는 모르몬교 聖殿(성전).

말일성도예수 그리스도교회(일명모르몬교)는 현충일인 오는 6월 6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현철행사를 갖는다.

대한적십자사의 협조를 받아 '모든 발자취에 신앙'이라는 표어 아래 열리는 이 현철 행사에는 모르몬교의 외국인선교사 3백50명을 비롯해 2천여명의 신자가 참여한다.

직업적인 성직자가 없는 모르몬교의 한국 책임자高元龍(고원룡) 한국 IBM전무이사는 "이번 현철행사는 모르몬교가 1847년 미국 유타주(주) 솔트레이크시(시)에 정착한 지 1백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당시의

개척자들이 보여주었던 헌신과 희생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1830년에 창립된 모르몬교는 세계 1백50여개국에 1천여만명의 신자가 있는 것으로 자체 집계하고 있으며, 미국 유타주 인구의 70%는 모르몬교 신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1951년 처음 전래돼 현재 1백50여개 교회에 7만여명의 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말일성도가  
미스 유니버스에 선발됨

지난 5월 16일 금요일,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비치에서 미스 유니버스로 선발된 미스 아메리카, 브룩 마렐라니 리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국인일 뿐만 아니라 충실한 말일성도 자매이다.

대회가 끝난 뒤, 세계 최고의 미인이 된 스물여섯 살의 리 자매는, 한 국내 일간지의 워싱턴 특파원과 가진 전화 회전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한국인이신 할아버지와 한국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금세기 초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해 왔던 한국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녀의 할아버지는 폴리네시아 계 여성과 결혼하였으며, 어머니는 중국인과 코카서스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리 자매는 다민족이라는 뜻의 하와이 방언인 "하과"가 자연스럽게 된 것이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한국어를 몇 마디 알고 있다는 그녀는 1997년도 미스 유니버스의 자격으로 "할아버지의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와이 펠 시가 고향인 리 자매는 현재 마노아의 하와이 대학교에서 정보 통신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졸업 후 하와이 영화 위원회에 취업하여 하와이 주의 영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충실한 회원인 리 자매는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을뿐더러, 건강을 위해 매일마다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코리아 타임스 1997년 5월 20자 기사에서 인용함)



# 150

'97 개척자 150주년 기념  
전국 청년대회

## 개척자 150주년 기념 전국 청년 대회 준비 모임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전국 청년 대회를 준비하는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오는 8월 6-9일 영동의 마니산 관광 농원에서 수려한 자연 경관과 더불어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 속에 열릴 예정인 이번 대회는, 프로그램과 참가 규모 면에서도 가장 크고 훌륭한 대회가 되리라 기대된다.

지난 6월 8일 노량진 와드에서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이자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 준비 위원장인 고원용 장로, 서희철 서울 동 신학 연구원 원장 및 신학 연구원 대학부 평의회 임원들이 모여 청년 대회를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진행 사항들을 점검하고 토의했다.

이날 발표된 청년 대회 계획에 의하면 먼저 각 대대는 회복의 천사인 모로나이를 필두로 참된 복음을 만방에 펼치고 성도들을 인도한 말일의 예언자들의 이름을 따라 구성할 예정이다. 전국 신학 연구원 대학부를 통해 설문 조사한 바로는 말일성도 독신 성인들은 세미나와 토론의 주제로 '사회 모순에 대한 말일성도의 대응 및 비판 자세'와 '훌륭한 아버지 상 및 어머니 상' '성전 결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준비 위원회는 세미나가 보다 나은 배움과 토론의 장이 되도록 최근 사회에서도 좋은 호응과 효과를 얻고 있는 '패널' 형식으로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장 보고 싶은 영화로는 서부 개척에 관한 교회 영화 'Legacy(유산)'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미국에서 특별히 지원을 받아 상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국 청년 대회가 개척자 150주년을 기리기 위한 것이니만큼 신앙으로 솔트레이크 계곡을 향해 나아갔던 손수레 부대를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과 용기를 경험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준비 위원회는 대회 첫날 영동 역에 집결해 청년 대회장까지 약 6.2 킬로미터를 손수레 대대원으로서 함께 참여할 50여 명의 뜻있는 독신들을 모집 중이다. 또, 이번 대회에서는 여러 독신 성인들의 재능을 선보일 개척에 관한 '시', '노래', '엽서' 등도 모집하고 전시할 예정이다.

모든 참가 신청 및 접수는 각 스테이크 독신의장이나 소속 신학원 독신 성인 평의회 의장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개척자 150주년을 맞은 전국 청년 대회 기념의 일환으로 로키 산맥을 이동하는 마차의 정경이 아름답게 인쇄된 공중 전화 카드를 제작 7월중 각 와드/지부에 판매할 예정이다. (강미경)

주께서 저를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여....



..청년대회'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 청년 대회 로고: 정소연  
▼ 그림: 홍신기

## 제1회 대학부 평의회 포럼

지난 5월 31일 서울 서 신학 연구원에서 서울 북 스테이크 이준택 부장의 감리 하에 '제1회 서울 서 신학 연구원 대학부 평의회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모임에는 허병석, 김은희 부부, 한민근, 이경주 부부를 연사로 모신 가운데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로 꾸러졌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김은희 자매는 "신권을 지닌 형제님에게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 내조하며, 신앙 생활을 같이 열심히 할 것과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시오."라는 권고의 말씀을 하였으며, 허병석 형제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감사하며, 순종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 받은 부름이 크든, 적든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라고 말씀했다. 또한 성실한 생활과 사랑에 기초를 둔다면, 결혼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민근 형제는 "홀륭한 결혼 생활의 전제의 99%는 합당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므로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 상대를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별히 허병석, 김은희 부부는 '사랑의 종소리'라는 노래를 불러주어 두 부부의 사랑과 화합을 노래로 표현했다.

이 모임은 더욱 많은 독신 성인 형제 자매들이 복음 안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 (이인희)



## 말일성도 국가 대표 다이빙 선수 부산 동아시아 대회 동메달 획득

"평화, 단결, 새로운 동아시아"를 모토로 지난 5월 10일부터 열전에 들어갔던 제2회 부산 동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서울 스테이크 성동 와드의 이미선 자매가 국가 대표로 출전한 다이빙 플랫폼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 자매의 메달 획득은 한국 여자 선수로는 지난 1970년 아시안 게임이후 27년 만의 것으로,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루어 얻어진 것이어서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동아시아 대회를 통해 일약 한국 다이빙의 희망으로 성장한 이 자매는 초등학교 4학년(9살) 때 기계 체조를 하다 다이빙에 뛰어들었으며, 이 자매의 천부적인 재능을 알아본 박유현 감독의 눈에 띄어 맹훈련을 거듭 그해에 국내 대회에 입상을 하여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미선 자매는 서울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인 이은상 형제와 스테이크 초등학교 회장으로서 봉사하고 있는 오부성 자매의 1남 3녀 중 장녀로, 집 안과 교회에서 어린 동생들을 자상하게 돌보고 초등학교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는 모범적인 회원이다.

12세 최연소출전 다이빙 이미선 선수

5살 때 수영 배워 10살에 국가대표



조선 영포 5월 10일자

【부산=특별취재팀】『부설지 않아요. 어찌의 아내는 언척다 보거든요.』 10m 높이와 워프에 끌어 발판만 걸린 채 서 있는 가냘픈 소녀. 가볍게 위로 솟구치더니 눈 깜짝할 사이 아래로 두바퀴 반쯤 돌린 뒤 물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어른은 인어공주 처럼 날렵 몸놀림.

이번 대회 최연소 국가 대표 이미선(12). 다이빙에 출전하는 이같은 참가 선수 1명9명이있는데서도 가장 나이가 어리다. 한 학년수영 선수(11세)는 가장 작고 키(104cm)도 줄어서 무뎠다. 지난 부산 아시아에이저대회에 출전, 3m 스프링보드, 플랫폼다이빙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런대의 출전종목은 10m 플랫폼 다이빙. 이 말이 다이빙을 본격적으로 배운 것은 9살때인 9년. 5살때부터 수영을 배워 이미 물과는 친했다. 다이빙은 평생의 '레파'로 일했다. 어머니는 두살이때의 동생들 다이빙 선수로 키를 생각하였

지만 동생은 적응하지 못했다. 『엄마, 내가 다이빙하면 안되나요.』 높은 곳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 좋았다. 평범한 평범한 아이였어 『물놀이』를 즐기던 어린 소녀는 1년간에 국가대표로 발탁했다.

## 말일성도 가족 팔도 효자 효행기 가족 독후감 모집에서 금상 수상

서울 특별시 종로구에서 실시한 제2회 팔도 효자 효행기 가족 독후감 모집에서 서울 스테이크 청운 와드 김양섭 형제, 최순재 자매 가족이 금상을 차지하였다.

우리의 문화 속의 효의 정신과 정서가 사라져 가는 이 시기에 효의 중요성과 한국 고유의 의리와 충효에 대한 팔도 효자 효행기를 읽고 김양섭 형제의 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각자의 효에 대한 느낌과 중요성에 대해 독후감으로 써서 응모한 것이 당선된 것이다.

김양섭 형제는 무엇보다도 값진 것은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김양섭 형제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청운 와드 감독으로 봉사하였고, 최순재 자매와의 사이에 4녀 1남을 두고 있다.

## 개척자 행군의 날



지난 5월 14일 서울 강서 스테이크에서는 개척자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스테이크 내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당시의 대이동을 재연하는 "스테이크 개척자 행군의 날" 행사를 가졌다. 계속해서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250여 명의 성도들은 모임 장소인 부천의 레포즈 공원에 모여서 공원에 있는 등산로를 따라 와드, 지부 별로

4개조로 나누어서 참여하였다.

정적인 활동이 진행된 포스트에서는 한달 전부터 '우리의 유산'을 읽도록 권고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3단계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여 보조 조직 별로 나누어 문제를 맞춘 경우 상품을 수여하였다.

동적인 활동을 맡은 포스트에서는 '안에서 밖으로 탈출'과 '한 마음 한 뜻'의 게임을 진행하였다. 특별히 '한 마음 한 뜻' 게임은 서로 발과 발을 묶어 한 줄로 서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게임으로 회원들이 서로 이동 방법을 논의하고 한 사람의 구호에 맞춰 전진해 나가는 활동을 하면서 개척자들의 이주 당시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서로 협동 단결하여, 기나긴 행군을 마친 개척자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이 두 포스트 사이에는 폭도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출발전에 주어진 찬송가를 부르고 성구를 암송시켜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일정 거리를 다시 되돌아 가야했다.

며칠 전부터 내린 비로 땅이 젖어서 산을 오르기에는 미끄럽고 위험했지만, 회원들이 서로 단합하여 끌어주고 밀어주는 모습 속에서 150년 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고난의 여정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우린 있어야 할 곳에 있었으며, 지켜야 할 것을 지켰으며, 바쳐야 할 것을 바쳤습니다."라는 자랑스런 간증과 확신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처소로 발걸음을 향하였다. (박혜영)

### 서울 동 스테이크

### 정능에서 봉사 활동

지난 6월 14일 서울 동 스테이크는 성북구 정능동에 위치한 정능을 방문하여 능 내외 개울 청소 및 잡초 제거 활동을 벌였다. 정능은 조선 태조 계비인 선덕 왕후 강씨의 능으로서, 문화재 관리국 산하 문화재로 13만 평 넓이다. 오는 7월 19일 봉사의 날 행사를 준비를 위한 사전 답사를 겸한 이날 봉사 활

동에는 15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였으며 우리의 조그만 노력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었다는 기쁨을 맛보았다.

오는 7월 19일 봉사의 날 행사에는 스테이크 내의 모든 회원들이 참여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관리소 측은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해 줄 것과 잡초 제거에 사용할 낫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테이크 부장단은 와드/지부의 모든 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하였다.

### 스테이크 중창단 창단 기념 발표회



서울 동 스테이크 중창단 창단 기념 발표 모임이 5월 11일 성북구 길음동 서울 동 스테이크 센터에서 열렸다. 서울 동 스테이크의 홍보와 음악을 통한 예배 및 회원의 음악성에 기여하고자 조직된 중창단은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반주는 장위 지부의 이지혜 자매(고2)가 맡고 있다. 회원 및 구도자 1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발표회에는 『남촌』, 『그 집앞』 등 우리 가곡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 내가 천사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 『주 기도문』 등을 중창으로 발표를 했고,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차선영 자매는 독창 『Sure on This Shining Night』을 들려 주었다. 찬조 출연으로 빈동 와드의 최경자 자매(중1)가 피아노 독주를, 최정 자매(고1)는 오보에 연주로 참여했다. 서울 동 스테이크 중창단은 앞으로 지역 사회의 음악회, 위문 공연, 특별 모임 출연 등 음악을 통해 지역 사회에도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박찬식)

### 양로원에서 모친의 칠순 잔치를 한 이우영 형제

서울의 동 스테이크 장위 지부의 이우영 형제는 지난 4월 30일에 어머니 정찬환 자매(70)의 칠순을 맞이하여, 일반적인 사회 관념을 깨고 색다른 방법으로 축하연을 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일반적인 풍속과는 달리 이 형제의 경우는 귀환 성전 선교사이며 현재 원장으로 이경기 자매가 재임 중인 흥복 양로원에 의탁하여 그 곳에 수용되어 있는 36명의 무의탁 불우 노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노모의 잔치를 치루어 내는 등 훈훈한 인심을 그 곳 양로원의 노인들 및 그 곳에 참석한 여러 회원들에게 보여 주었다.

한편, 양로원에는 이 형제의 모친이 소속되어 있는 장위 지부 노인회의 회원 9명이 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여 평소에 연습해 둔 고전 무용 및 기타 여러 가지 장기를 선보이는 등 갖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주관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파사롭게 하였다.

이우영 형제의 이러한 칠순 잔치는 부모님에 대한 효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회의 구석 저편까지 돌보는 세심한 배려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행위이며 말일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덕성을 행동으로 옮긴 모범적인 실례라고 볼 수 있다. (박찬식)

### 서울 북 스테이크

### 아론 신권 회복 기념 행사

5월 17일에 서울 북 스테이크 청년들은 올해



로 169주년을 맞는 아론 신권 회복 기념 행사를 서울 교외에 위치한 북한산 국립 공원 내 북한 산성 초등 학교에서 김영근 부장(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의 감리로 가졌다.

매월 1회씩 갖는 보이스카웃 대집회와 병행해서 활동 모임을 한 이번 행사는 개회 순서 후에 약 2 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을 네 개 베이스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각 베이스는 아론 신권 회복의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150주년을 기념하는 개척자 정신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베이스 활동의 종착지였던 북한 산성 성곽의 성루에서는 불광 와드 심경석 감독의 진행으로 개척자들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후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로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하여 정착하는 과정을 묘사하여 참가자 모두의 가슴 속에 개척자의 위대한 신앙에 대한 감동을 느끼게 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교회 회복에 있어서 아론 신권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신앙의 선조들의 개척 정신과 모범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는 소중한 기회였다. (황창주)

## 서울 서 스테이크

### 경전 이야기 대회

5월 10일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는 초등학교 경전 이야기 대회가 열렸다. 이상태 부장의 감리 하에 치러진 이번 대회는 만4세 이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재구성하여 발표하였다.

노랑진 와드의 박인우, 박인영, 상도 와드의 강태임, 김지선, 김지혜, 박재우, 김자



영, 황지영, 김민선, 김동영, 봉천 와드의 이영환, 이해은, 이준왕, 백완선, 서현우, 서강원, 낙성대 와드의 김보영, 김대연: 신림 와드의 박명화, 최예슬이 참여하였다. 특히 봉천 와드 이준왕 형제는 실감나는 성대 묘사까지 해서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모임 중간에 상도 와드 김동용 형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하여 분위기를 돋구었다. 어른들이 읽어 주는 동화책과는 달리 경전 이야기를 듣는 감흥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격려를 보내주었다.

이날 대회는 우열을 가리는 대신 참가자 전원에게 칭찬과 격려의 심사평을 하고 참가상을 수여해 모든 어린이들이 흐뭇해 하는 가운데 막을 내렸다. (박희경)

## 안양 스테이크

### 초등학교 미술의 날

5월 10일 화창한 봄날 오후, 안양 스테이크에서는 이영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 하에 제2회 '미술의 날' 활동이 개최되었다. 미술 활동으로 초등학교 시각 보조 자료 및 활동 자료에 직합하며 실용성있는 활동을 준비하였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한 인식을 돕기 위해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는 표어를 연상케 하는 집 모양의 '성구 고리 카드'를 만들었다. 또한 카드의 창문에는 자신의 사진을 붙여 초등학교 시절 소중한 개인 유산이 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각 와드 회장단에서 그 주에 중요한 경전 성구 카드를 어린이들에게 주어서, 암송케



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사용될 예정이다. 스테이크 초등협회 회장단은 성구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용감하게 옳은 일을 선택하며, 이로 인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고자 이번 활동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은 모임이 끝날 때까지 재미있어 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였으며, 참석치 못한 친구, 동생들의 것을 만들어 주려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한 어린이의 즐거운 모습이 돋보였다. 이번 활동을 통해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 이유와 그 순수한 사랑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박현진)

## 인천 스테이크

###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및 경로 잔치



지난 5월 10일(토) 인천 스테이크 센터가 있는 답동 와드에서는 상호부조회 창립 156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은 경로 잔치를 겸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스테이크 내 노인 회원들과, 회원들의 부모님까지 초청하여 시종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개회 순서에서 모임을 감리한 박동화 부장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상호부조회의 모토에 대해서 그 말의 참뜻을 새삼

강조하고, 상호부조회 어머니들의 역할이 각 가정은 물론 스테이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하였으며 지금까지 상호부조회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씀했다. 개회 순서에 이어 모든 회원들은 활동실에서 잘 준비된 만찬을 든 후, 곧 바로 2부 순서에서 합창과 무용, 대금 연주 및 연극 등 다채로운 재능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합창 순서에서는 "사랑의 송가"를 포함한 3곡을 메들리로 불렀으며, 이 날 놓아 지부 자매들은 찬조 출연을 하여 계보 사업의 중요성에 관한 연극으로 성전 의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었다. 또한 전통 부채춤 공연에 출연한 자매들은 모두 아름다운 한 마리의 나비와 같은 모습으로 갈고 닦은 재능을 선보여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 순서인 "This is the place"라는 제목의 연극은 이날의 감동을 절정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했다. 신앙의 선조들이 온갖 박해와 시련을 피해 「브리검 영」의 인솔로 서부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겪는 상상을 초월하는 갖가지 고통과 마침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하여 환호하는 모습 등 이미 교회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큰 감동을 주었다. 특히 화가로 활약하고 있는 주안 와드 조정숙 자매의 무대 배경 그림은 연극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보탬이 되었다. 이날 모임이 끝난 후 스테이크 부장단은 참석하신 노인들에게 미리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였다. 또한 스테이크 내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사랑과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즐거워 하였다. (이성열)

### 대구 스테이크

## 지역 대회 준비를 위한 특별 노년의 모임

지난 6월 1일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에서

는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 하에 부산 지역 대회 준비를 위해 특별 노년의 모임을 가졌다.

수성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인 양영실 자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 주신다면서 주님의 영이 동반하기에 일요일에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힘이 계속 난다고 전했다. 경산 지부의 유병철 지부장은 회원들을 여행을 하는 기러기 때에 비유하면서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사랑을 보일 것을 부탁"를 부르면서 참여한 모든 회원들은 지역 대회를 준비하는 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주연사인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은 노년의 모임이 부산 지역 대회를 준비하는 모임이지만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모임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대회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훈련이므로 성도들 각자는 기본적인 신앙 생활에 충실하여서 욕망에 빠지지 말고 변화하자고 당부하였다. 또 주님의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대회를 위해 6월 4, 8, 11일에 성도들이 함께 금식해 주기를 권고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역 대회를 준비하는 역원들의 간증과 당부의 말씀은 회원 개개인이 대회를 준비하는 방법과 인생의 목적을 재조명하는 데 힘을 주었다. (김재우)

## 김병만 축복사, 영예의 계명 교사상 수상



교사상을 수상하였다.

교사상은 학습 지도면, 생활 지도면, 봉사 활동면에서 중등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계명 대학교가 추구하는 학문의 탁월성

지난 5월 24일, 대구 계명 대학교 대회의실에서는 열린 계명 교사상 시상식에서 대구 스테이크 축복사인 김병만 형제가 영예의

추구와 윤리성 양양의 이념에 부합된 교사에 게 수여된다. 이번 수상 후보자들은 시내 4개 교육청에서 한 사람씩 추천된 중학교 교사들로서 계명 교사상 심사 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하여 선정하는 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연구비 그리고 본 대학교 대학원 입학시 특전이 주어진다.

김 형제는 과거에도 속진아를 발굴하여 전국 고교 외국어 경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케 하여 중학생 조선 일보에, 1년 간의 열린 교실 수업 공개로 EBS 교육 방송과 대구 매일 신문에 크게 소개된 적도 있고 교육자료전, 수업 발표 대회 등에서 7회 입상한 바도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 선진화 중학교 영어 교과 분과 위원장으로 3년간 봉직하는 동안 많은 학습 자료를 개발, 일선 학교에 보급하여 교육 개혁에 기여하는 등 말일성도답게 행동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번에 큰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은정)

## 수성 와드 태풍 축구단 발단식



지난 6월 6일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에서는 "청소년의 뜻을 한 곳에 모으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에서 청소년을 주축으로 독신 성인과 기혼자와 함께 "태풍" 축구단 발단식을 가졌다. 회원 모두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자는 의미로 태풍이란 이름을 지었다.

새벽 6시부터 진행된 모임에 청소년 14명, 독신 및 기혼 형제 12명 등 약 26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환영 인사에서 축구부 총감독을 맡게 된 김종현 감독은 힐라맨의 2000 용사의 비유를 들면서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



## 노년의 모임

지난 5월 25일 오후 부산 스테이크에서는 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김종열 장로와 신권 지도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년의 모임을 개최하였다.

6월 14-15일에 개최되는 지역 대회를 준비하면서 "신앙을 맞을 준비"를 하는 부지런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고자 하는 회원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시작된 모임에서 양기욱 스테이크 부장은 니파이일·이서를 인용하여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 상황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 시대야 말로 권고 받을 시대이며, 성도들은 굳건하고 충실하게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특별 찬송 순서로 합창단이 준비한 "신앙의 발자취"를 들은 후 김종열 장로는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름에 봉사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신앙의 선조들에게 훌륭한 유산을 받았으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계승 발전시키자고 전했다. 또한 세상적인 모든 일을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십일조를 충실히 내라고 권고했다.

김종열 장로의 말씀과 폐회 순서가 끝난 뒤, 성도들은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에게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다가오는 지역 대회를 더욱 잘 준비해서 치르자고 결심을 하였다. (문경호)

## 한국 보이스카우트 부산 연맹 말일성도 지구 연합회 발대식

지난 5월 17일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에서 아론 신권 회복 기념식 및 한국 보이스카우트 부산 연맹 말일성도 지구 연합회 발대식이 있었다.

부산 지역의 보이스카우트는 1984년 9월 15일 처음 발대식을 가진 이후로 부산 연맹

산하 각 지역대에 속해 있었으나, 각 와드별로 대대가 결성되고 부산 서 지방부, 울산 지역, 마산 스테이크로 확산됨으로써, 독립된 지역대인 말일성도 지구 연합회를 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지구 연합회를 결성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지도자 양성 지도자 입문 과정을 할 수 있으며, 한국 보이스카우트 내의 말일성도 보이스카우트의 위상을 강화시킴으로써 선교 사업에 일조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각 스테이크에 보이스카우트가 조직됨으로써 청년 활동을 강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으며, 스카우트 활동에 큰 역할을 할 지도자를 많이 양성함으로써 청년들을 또한 강화시킬 수 있다.

부산 지역에서는 1995년 6월, 부산 연맹 주최로 말일성도만을 위한 지도자 기본 훈련을 한 바 있었으며, 1997년 5월에도 많은 회원들이 지도자 기본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계속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이번에 조직된 말일성도 지구 연합회의 위원장은 부산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이순철 형제가 맡고 있다.



▲ 한국 보이스카우트 부산 연맹 말일성도 지구 연합대 발대식

지구 연합회 현황은 아래와 같다.  
바운티를 지역대: 온천, 연산 와드  
리아호나 지역대: 수정 와드(유년대)  
테저렛 지역대: 광안, 해운대 와드  
이천 용사 지역대: 울산 지역  
모로나이 지역대: 부산 서 지방부  
그노리움 지역대: 마산 스테이크  
(신화숙)

원이 되고 가족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될 것을 당부했다. 청남 회장인 길희근 형제는 정기적으로 훈련 모임에 참석하면서 강한 신앙을 만들어 가자고 하였다.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이미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었다. 개회와 선서식을 갖고 준비 운동을 간단히 한 후, 영남 전문대로 가서 조기 축구회와 친선 경기를 가졌다.

태풍 축구단 위원으로는 총감독에 김종현 감독, 부감독에 이권태 형제, 코치에 김남주 형제, 훈련 코치에 길희근, 김부곤 형제, 주장으로 유병주 형제가 수고하게 된다.

청소년의 뜻을 한 곳에 모으고, 우정 증진 및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조직된 태풍 축구단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청소년들의 가치와 모범을 보여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김재우)

## 미스 춘향에 선발된 이윤희 자매



제67회 춘향제 행사의 하나로 지난 5월 14일, 전라북도 남원시 쌍교동 광한루원 완월정 특설 무대에서 열린 춘향 선발 대회에서 대구 스테이크 수정 와드

이윤희 자매가 미스 춘향 "숙"에 선발되었다. 이 자매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 생활을 해왔으며, 지난 95년 9월부터 97년 2월 까지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다.

이윤희 자매는 전직 모델로서 가장 전성기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였으며, 선교 사업 중에 3번의 김호직 상을 수여 받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봉사했다. 이 자매는 선교 사업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 강해졌고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한다.

이번 미스 춘향에 선발된 것은 말일성도의 아름다움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승현)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  
승학산 등반 모임 가져



지난 6월 6일 부산 서 지방부에서는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를 피정 지부에서 가졌다. 교회에서 전국적인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헌혈 행사에 참여하고 난 후 신앙의 선조들이 솔트레이크로 이동하며 겪었던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하여 인근의 승학산 정상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날 참여 인원 70여 명 중 식사 준비를 위한 10여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이동에 참여했으며 중간 지점에서 단 한번 휴식을 취하고 계속 산을 올랐다.

이 이동은 헌혈 후 바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모두 힘들어 보였지만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정상에 도달하였다. 정상에서 회원들은 다 함께 '높은 산 언덕 위'를 함께 부른 후, 염호경 지방부장이 '바로 이곳이다'를 외침과 동시에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를 함께 불렀으며, 이어서 지방부 합창단이 '신앙의 발자취'를 불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로 영으로 가득한 승학산 정상에서 성도들은 매일 기도하는 것과 경전을 읽을 것을 약속했으며, 기념 촬영 후 각 지부별로 서로를 격려하며 하산했다.

이 날의 행사를 통해서 부산 서 지방부 회원들은 신앙의 선조들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었으며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굳건히 서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이성희)

1997 광주, 전주 연합 합창제

지난 5월 14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개척자 150주년 기념 "97 광주, 전주 연합 합창제"가 개최되었다.

먼저 가족 합창 발표 순서로서 윤정규, 최은숙 부부가 "마음 깊은 곳에 그대를", 김광윤, 정소연 부부가 "산촌", 조용현, 이은순 부부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김경자, 서송희 모녀가 "Perhaps Love"를 불렀다.

이어진 환영 인사에서 임종하 광주 스테이크 부장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용기있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노래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는 수단이 찬송가라고 말씀했다.

합창 순서로 전주 스테이크 "리아호나" 합창단이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오페라 중 "개막의 합창", "여리고의 싸움", "총각 타령"을 했다. 지휘에는 조영곤 형제, 반주에 홍주원 자매가 수고하였다. 이어서 피아노 독주로 슈베르트의 "즉흥곡 2번", 리차드 크레이더만의 "Eleana"를 조현향 자매가 연주하였다.

피아노 독주에 이어 광주 스테이크 "구모라" 합창단이 박정자 자매의 지휘와 서나미 자매의 반주로 "고향", "종려 나무", "주의 영광"을 합창했고, 안혜정, 정미정 자매가 중창으로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 "백작 부인의 이중창", 박정자, 안혜정, 서나미 자매가 "지난날을 불렀다. 이어서 광주, 전주 연합 합창단이 "난 하나님의 자녀", "경복궁 타령", "기뻐하며 경배하자"를 합창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향한 사랑을 노래로 표현한 좋은 시간이었다. (박유미)

초등협회 재능 발표회

지난 5월 3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초등협회 재능 발표회 모임이 개최되었다.

먼저 스테이크 부장단 최중배 형제가 환영 인사를 하였고 이어 어린이들의 재능 발표가 있었다. 풍향 와드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발표했으며 권혜련 자매가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에게 바라는 것에 대해 말씀했다. 총장 와드는 성구와 노래를 발표했고, 선교사들이 춤과 묘기를 보여 주었다. 농성 와드는 "아기새의 엄마"를 발표했다.

가족 발표 순서로서 최슬기 자매 가족이 "아가씨들"을 노래했고, 백운 와드는 귀여운 춤을 선사했으며, 풍향 와드의 윤홍주 자매가 엄마와 함께 구연 동화 "청개구리의 울음", 스테이크 초등협회 회장단이 "합정에 빠진 호랑이"를, 송정 와드는 개척자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어린이들의 천진함과 순수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느낀 귀중한 시간이었다.

행복한 삶이 만나는 포럼

지난 5월 8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행복한 삶이 만나는 포럼 모임이 개최되었다. 먼저 가정이 지상의 천국임을 느끼게 하는 조용현 형제 가족이 "별"을 노래한 후에 홍병식 대전 선교부장이 "천국이란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이어서 한인상 서울 성전장은 행복한 가정이란 주제로 행복을 위한 4단계로 유순한 대담, 사랑이 담긴 풍부한 표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 그리고 듣는 것을 강조하였다.

성전 결혼과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꾸미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다.


<b>역원 변경</b>
<b>전주 스테이크</b> 노송 와드 감독: 김요안 (전임자: 조윤규)
<b>수원 스테이크</b> 매탄 와드 감독: 오정오 (전임자: 도철)

##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개척자 150주년 기념 연극 공연 - 두차례의 공연을 성황리에 마칩 -

**지**난 4월 19일과 5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동대문 스테이크에서는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로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연극 공연을 가졌다.

1846년 나무에서 평화로운 성도들의 삶이 폭도들에 의해 박해 받고 나무를 떠나 서부로 이동해 가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 개척자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스테이크 특별 행사로 공연을 갖게 되었으며, 이 연극을 통해 개척자들의 역경과 고난을 재현하여

그들의 희생과 놀라운 신앙에 감사하고 이를 계승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되었다.

연출자인 김영순 자매는 연극 공연을 위해 개척자들의 발자취를 재현하고자 관련된 모든 서적과 자료를 정리하고 대본을 완성하기까지 개인적인 일을 뒤로 하고 이 일에 전념하였으며, 시설, 배경 그림, 의상, 배우 섭외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희생은 스테이크 부장단의 전폭적인 지지와 더불어 개척자들의 발자취에 따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감동의 무대를 연출하였다.

### 1

#### 준비

해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연말에 신권 지도자 모임과 더불어 공연되던 동대문 스테이크 연극을 서부 개척 150주년 기념 행사로 공연하기 위해 스테이크 부장단은 잠정적인 공연 일자를 4월 초로 결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서둘렀다.

스테이크로부터 특별 임무 지명을 받은 김영순 자매는 자신이 속해 있던 극단에서 조연출하고 있던 작품을 포기하고 역사적인 개척자들의 행로를 실제적으로 표현하고자



▲ 연극이 끝나고 함께 모인 출연진과 준비 위원들

대본 작업에 몰입했다. 개척자들의 삶을 구석구석까지 이해하고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와 참고 서적들을 읽으면서 개척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역경에 가슴이 저리도록 울었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손댈 수가 없었다.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의 선조들의 희생 정신을 150년 후의 우리들에게 계승하고자 개척자들의 신앙 행로를 그대로 작품에 옮기려고 노력하였다. 작업이 마무리되고 배우를 섭외하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였고 공연 일자가 4월 19일로 정해지면서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14일 정도의 기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밤 12시까지 강행군을 해야 했다. 매일 매일의 연습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끝마쳤을 때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연극에 참여하는 배우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40대 후반의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한번도 연극을 해본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었다. 짧은 시간 동안 대사를 외우고 한 장면 한 장면 연습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과정의 연속이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숙제와 학원 수업을 마치고 피곤함을 이기고 12시까지 계속되는 연습에 너무 지

쳐 한쪽 구석에서 졸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일어나서 참여하는 열성을 보여 주위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도 했다. 대학교에 다니는 한 형제는 매일 준비해야 할 리포트가 서너 가지나 되었지만 그래도 불평 없이 연습 후 밤을 새워 가며 과제물을 준비하는 희생을 보여 주었다. 또한 30여 명의 배우와 스태프들의 식사를 위해 매일같이 직장이 끝나자마자 시장을 보고 식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준 상호부조회 자매님들과 다섯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음식을 준비해 준 한 자매님의 열의는 감동적이었다. 나무 성전을 짓는 무대 배경으로 가로 9미터, 세로 3미터의 초대형 그림을 만들기 위하여 이명수 형제는 밤을 새워 가며 자비로 그림을 제작하였다. 무대 소품으로 사용되었던 손수레는 교회 근처의 건설업체의 도움을 받아 구할 수 있었다. 4월 19일의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관객들의 호평과 열화와 같은 앵콜 요청으로 인해 재공연의 날짜가 결정되면서 준비 위원회가 재구성되어 출연진들을 다시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회원들의 열의는 계속되었다. 초연을 마치고 연출 공부를 위해 도미하였던 김영순 자매는 재공연이 결정되자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허락 받고 다시 귀국해서 연출을 맡아 주었고 그 사이 결혼을 하여 경남 사천 시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김영미 자매도 연극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고 박송자 자매는 임신한 몸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공연에 임하기도 하였다.

연극 홍보를 위해 담당자인 김이화 형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대형 현수막, 포스터, 초청장을 제작하여 서울 지역의 회원 및 비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청의 허가를 얻어 동대문 지역에 포스터를 게재하였다. 상호부조회는 식사를

준비하는 정성을 다시 보여 주었으며, 연극 공연 전날과 당일의 2일 간에 걸쳐서 동대문 스테이크에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모두 용두 와드에서 선교 전시회를 열고 구도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연극 홍보 및 교회를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회원들은 대본이 쓰여질 때부터 자신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초대하고자 온갖 노력과 성의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 바쳤다.

한번은 연습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모두들 지쳐서 포기하려는 분위기가 일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그만 하자는 의견이 나온 적도 있었으나 이 연극의 취지가 개척자들이 보여준 신앙의 유산을 기리기 위한 것임을 자각하고 이것을 재현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고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어려움을 고비로 출연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고 신앙과 축복은 희생을 통해서만 얻게 된다는 간증을 갖게 되었다.

## 2

### 공연

역사적인 사실의 재현인데다가 1시간 20여분의 공연은 배우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다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드렸고 막이 오르기 전 다시 주님께 함께 해 달라고 기도 드렸다. 활동실을 가득 메운 350여 명의 관람객들의 우리와 같은 박수로 드디어 무대의 막이 오르고 신앙의 선조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재현되었다. 살을 에는 듯한 흑환과 눈보라 속에서의 행렬, 폭도들에 의해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갓 결혼한 자매가 남편과 사별하는 처절한 모습, 이런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등,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장면이 실감나게 연출되었을 때 배우와 관객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쏟았고 약속의 땅을 찾아 희망의 서부로 이동

하는 모습에서 격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공연이 끝난 뒤 배우였던 한 형제님은 직장 동료들을 공연에 초대하여 보다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분들은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로 말일성도에 대해 그리 좋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연극을 통해서 말일성도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해 주었다.

영동 스테이크의 어떤 형제님은 좀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연극을 보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많이 흘려 보았고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해왔지만 막연했던 선조들의 희생을 연극으로 보고 더욱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였다. 한 자매님의 남편은 비회원이었는데 이 연극을 통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형제님은 이 연극 당일 몇 시간 전에 전문 극단

에서 공연하는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악극을 보고 오면서 교회에서 하는 연극에 대해 반신 반의하며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다. 하지만 연

극이 끝난 후 매우 감동적었으며 신앙의 선조들의 체험을 잘 표현한 훌륭한 연극이었다고 평하였다. 배우로서 참여했던 한 자매는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연습과 공연을 통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어떠한 사탄의 방해라도 주님의 사업은 좌절될 수 없으며 우리가 끝까지 견디려고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간증을 전하였고 참으로 특별하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표하였다. 또 연극을 관람한 대부분의 회원들이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선조들이 남긴 눈물겨운 사랑과 희생 그리고 모범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

동대문 스테이크의 개척자 150주년 특별 연극 공연은 신앙의 선조들의 역경과 고난, 희생과 용기의 작은 일부분을 재현함으로써 현재의 우리에게 150년 전의 선조들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새로운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참여한 배우들 뿐만 아니라 스테이크 회원 모두가 연극을 통해서 말일성도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리라는 다짐을 하게 하였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연극의 3요소인, 무대, 배우, 관객이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이현수, 이선희)



그래도

## 우리가 가야 할 길



장효정 (동대문스테이크 옹두와드)

이번 개척자 150주년을 맞아 전 좀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회원이며 또 아버지께서는 이곳 옹두 와드로 오시기 전 여수 와드 지부장 및 감독으로 16년 동안 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교회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에겐 바로 그런 점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친구들을 선교사님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학교 담임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에게 교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땐 친구들을 초대했고 선생님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또한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와 많은 난관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부모님의 반대로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분들은 선교사님이 찾아가도 냉대하셨습니다. 친구가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 친구에게 계속 경전을 읽을 것을 권유했고 지혜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 봐주었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을 하며 많은 유혹에 부딪혔습니다. 기호 식품이 되어버린 커피, 그리고 술과 담배. 바로 제게 찾아온 사탄의 첫번째 유혹은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혜의 말씀을 어겼고 저에게 권유도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전 어렸을 때부터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므로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이 세상은 더욱 더 그러한 것들이 파도가 밀려오듯 드세게 다른 형태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혼돈되기 쉽도록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제 친구들은 저에게 그러한 것들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도 제 앞에서 만큼은 지혜의 말씀을 지켜주려 노력합니다. 전 친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분은 우리 교회에 대해 거짓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벌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 학교도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1학년 때 전도사님께서 종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길을 가다 보면 외국인 두 명이 물문경이라는 책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을거예요. 나도 한 번 읽어 봤어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곳에 이끌려 가지 마세요. 그 교회는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데, 이단이에요." 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라고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저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었다면 그들이 더욱 더 우리 교회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비로소 지금에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많은 재능들을 교회에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연극인데 이번에 개척자 150주년을 맞아 특별히 열심히 준비한 연극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공연하며 더욱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들었을 뿐 별로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던 개척자에 대해 정말 공감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개척자들이 모두 자신들을 희생하며 여러 곳을 이동했듯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곳곳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

는 것을 보며 무척 가슴이 아파움을 느꼈습니다. 그 연극에서 때론 사람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죽음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자신들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으면서까지 그 행군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분들의 신앙이 현대의 사람들에 비해 얼마나 더 강한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이 연극을 통해 많은 분들이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들 바쁜 신 데에도 불구하고 연습하러 오셨고, 저녁을 늘 준비해 주셨던 상호부조회 자매님들, 그리고 무대 장치와 배경 그림 등을 모두 손수 나서서 봉사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전 고3이기 때문에 이 연극을 한다는 것은 무리였고 제일 처음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위 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배역들을 그 인물에 맞게 배치하고픈 연출가 선생님 때문에 끝내는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배역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때 특히 '교회의 일이고 주님께 봉사하는 일인데...'라는 생각이 들자 고3이라는 이유로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모두가 이번 연극을 통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희생했지만 옛 선조들에 비한다면 아주 조그마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열심히 준비했고 공연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희생은 언제 어디에서나 저희에게 요구되는 것이며 우리는 모두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행했듯이 강한 신앙으로 기꺼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 수 있어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왔던 수많은 박해와 핍박,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가올 모든 유혹들, 한 번쯤 우리 모두가 옛 선조들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쉽게 뿌리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바쁜 이 때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생활한다면 강한 신앙과 간증이 자리잡을 것이며 우리 자신을 지키는 확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며 이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199기  
(1997년 4월 28일 - 5월 16일)



왼쪽부터: 노원철, 이정영, 김선영, 김현경, 이영이, 이재학

<성명>	<출신지>	<선교부>
배기수 장로	청주 스테이크 예성 지부	서울 서 선교부
김선영 자매	영동 스테이크 오문 와드	대전 선교부
김현경 자매	영동 스테이크 분당 와드	대전 선교부
노원철 장로	강릉 지방부 강릉 지부	부산 선교부
이영이 자매	강서 스테이크 신정 지부	부산 선교부
이재학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마포 와드	서울 선교부
이정영 자매	강릉 지방부 동해 지부	부산 선교부

## 미국 NCAA에서 활약하고 있는 빛나는 한국인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는 오하우섬 라이에에 소재해 있으며, 65여 개의 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 이룩한 살아있는 작은 지구촌 마을이다. 서로 다른 인종, 문화, 언어의 벽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약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지 실지로 보여 주는 이곳 현지에는 약 80여 명의 한국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과 재능을 펼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이기현 형제(가운데)

그중 NCAA(미국 대학교 미식 축구 리그)에서 자신들의 특기를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자랑스런 한국인들로 경남 마산 스테이크의 창원 와드 출신의 이기현 형제와 광주 스테이크 출신의 문대우 형제가 활동하고 있다. 하와이 캠퍼스 NCAA축구부 선수단원들은 북·남미 지역 및 아프리카에서 발탁된 유능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18명 중 2명의 한국 형제들이 아시아인을 대표해서 활약 중이다. 이들은 지난 겨울 LA 원정 경기에도 참가하여 2승 3패의 아쉬운 결과를 낳았으나, 매일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자신들의 기량을 닦고 있다. 특히, 지난 95년 하와이 리그에서 최다 득점 왕으로 선정된 바 있는 이기현(LEE KEE)형제의 하와이 캠퍼스 축구부에 대한 공헌은 괄목할만하다. 초등학교 시절에 축구를 시작한 이후, 축구 특기생으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대학에서는 정치 외교를 공부한 바 있는 이형제는 95년 축구의 인연으로 이곳 하와이 캠퍼스에서의 유학 생활을 시작하였다.

자신의 신앙과 신념에 대해서 남달리 깨끗함을 보여 주는 이 형제는 1남 6녀의 장남으로서, 85년 영어회화를 통해서 침례 받았으며 4년 후 89년도에 대전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였고, 하와이 유학 전에는 막내 여동생을 침례를 주기도 한, 이 세대의

살아있는 물문의 개척자 정신을 선보여 주고 있다.

물문경의 베나민왕의 설교처럼, 봉사 정신이 몸에 배어있는 이 형제는 하루 세 시간의 축구 훈련과 P.C.C(폴리네시안 센터) 식당 주방에서 네 시간 동안의 아르바이트 외에도, 틈틈이 교내 외국 학생들에게 태권도 강습을 해주고 있고 특히, 캠퍼스 안에서는 소문난 무료 이발사이다. 자신의 학원, 축구, 일

로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이 형제는 이곳 현지의 바쁘고 힘든 유학 생활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다른 한국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고 있다.

매 경기 때마다 최전방 공격수(Forward)로서, 상대편의 심한 수비로 인한 부상의 염려가 있지만, 매 경기 시작 전 주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로서 경기에 임한다고 이 형제는 말한다.

장래 희망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선뜻 '대관장'이라며 소탈하게 웃어주는 이기현 형제는 미래 한국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하며 좋은 한국인으로서 좋은 아빠, 그리고 좋은 남편이 되겠다는 다짐도 빠뜨리지 않았다.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 형제는 언젠가 무료 이발소나 침술원을 개원하여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하며 나이가 들어 훗날 자신의 얼굴에도 성실히 살아온 사심 없는 깨끗한 모습을 지니고 싶다고 겸손하게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이 형제는 6월말에 입국하여 올 겨울 12월에 결혼한 후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이곳 브리감영 대학 교 하와이 캠퍼스에서 자신의 특기를 발전시키며, 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시간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김은옥)